

보이스피싱 걸러주고 게임하면서 전화 받는다

이동사들 통화 편의 서비스 잇따라

LGU+ '후스콜'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SKT 다기능 전화플랫폼 'T전화' 인기 KT '팝업콜' 화면전환 없이 바로 통화

짜증나는 스팸과 보이스피싱은 걸러주고, 인터넷서핑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화면전환 없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관련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1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는 중이다. 특히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인 통화와 관련된 편의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와의 제휴를 통한 모델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편의성이 개선된 전화플랫폼을 통해 가입자의 충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보이스피싱 여부 제공

LG유플러스는 네이버의 자회사 캠프모바일과 제휴를 맺고 전화가 왔을 때 스팸을 알려주는 '후스콜'을 자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Uwa'에 16일 탑재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사전에 거절하고, 문자메시지(SMS, MMS)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주소(URL)의 위험여부도 미리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택배와 배달 음식점 등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에 대한 우선 전화번호 정보도 제공한다.

KT는 이에 앞서 지난해 kt cs를 통해 안드로이드 기반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후후'를 내놨다. 이 앱은 지난 달 기준 7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올해 초엔 114데이터베이스(DB)와 인터넷 전화번호 정보를 다한 650만 건의 전화번호 DB를 기반으로 한 검색서비스 '후후 114'도 출시했다. 전화번호검색과 함께 지

도와 길찾기, 거리뷰는 물론 내비게이션으로도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SK텔레콤도 올해 초 '안심통화'와 'T114' 기능을 갖춘 전화플랫폼 'T전화'를 내놨다. 안심통화 기능은 다른 이용자가 등록된 전화번호 평가를 공유해 해당 번호의 수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 피싱방지 기능이다. T114의 경우 전화번호 안내를 통하지 않더라도 연락처에서 약 100만여개의 번호를 이용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검색하고,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지도 등 관련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화면전환 없이 통화 연결

스팸방지와 전화번호 검색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를 위한 편의 기능은 이 밖에도 많다.

먼저 SK텔레콤의 T전화에는 자주 통화하는 12개의 추천 번호를 한 화면에 보여주는

'홍화면'과 요금제 및 데이터·음성 잔여량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갖추고 있다. T전화 이용자는 6월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KT는 지난달 말 스마트폰으로 게임, 인터넷 서핑,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하고 있는 중 전화가 걸려 와도 화면전환 없이 기존 이용하던 기능들을 유지하면서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올레 팝업콜'을 선보였다. 올레 팝업콜은 스팸 방지 앱 '후후'와 연동된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통화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 중 전화가 걸려왔을 때, 기본 전화 수신 화면으로 전환 없이 멀티태스킹으로 전화를 수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Uwa'를 선보였다. 올해 초엔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제휴를 맺고 Uwa에 음성 인식으로 화면전환 없이 통화를 연결해주는 '핸즈프리' 서비스도 내놨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 이동통신사들이 보이스피싱은 걸러주고, 화면전환 없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편의성을 강화한 통화 관련 서비스를 잇달아 내놔 관심을 모은다. 자주 통화하는 추천 번호를 한 화면에 보여주는 '홍화면'을 갖춘 SK텔레콤의 'T전화'. 사진제공 | SK텔레콤

대관령의 여름, 춤과 음악이 흐른다

양영모의 아이 러브 스타이지

대관령국제음악제, 내달 5일까지 소리의 향연

올해도 국내·외 저명연주가들 대거 참가 정열의 플라멩코부터 고풍격 클래식까지 손열음·김태형·김다솔 바흐 연주도 기대

여름이면 대관령에 클래식의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머리가 익을 듯 이글거리는 태양이 힘을 잃어갈 즈음, 대관령 곳곳에서는 가녀린 바이올린이 집시의 달을, 피아노가 잠 못 드는 푸른 밤을, 첼로가 흠뻑 젖은 바흐의 옛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국제적 레벨의 클래식 음악제로 자리매김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어느덧 11회를 맞았다. 클래식 음악의 불모지인 강원도, 그것도 해발 700m 고지에서 클래식음악의 불을 지핀 지 11년이 됐다. 지난해가 '노던 라이트-오라라의 노래'를 주제로 북유럽 5개국 천재 음악가들을 기리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훌쩍 뛰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굳이 클래식 음악 애호가 아니더라도, 학창시절 음악시간을 통해 익숙한 이탈리아 나폴리 민요 '오 솔레미오(나의 태양)'가 테마다. 남유럽 지방의 음악이 풍부 있는 총명한 영감과 다채로운 선율의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스페인의 정열을 담은 플라멩코, 기타와 춤으로 만난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15일부터 8월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를 베이스캠프로 삼아 강원도 곳곳에서 열린다. 뭉치 뭉치 해도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간판 프로그램은 '저명연주가 시리즈(7/24~8/3)'다. 말 그대로 '저명'한 국내외 연주자들이 참가해 무대를 꾸민다. 그 해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성패는 얼마나 '저명'한 연주자들이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어떤 연주자들이 대관령을 찾을까. 일단 스페인으로 날아가 보자. '스페인'하면 딱 떠오르는 음악이 안달루시아 집시음악에서 비롯된 플라멩코다. 이 번에 내한하는 벨렌 카바네스는 캐스터네츠를 양 손으로 연주하며 춤을 추는 댄서다. 스페인 음악을 가장 맛있게 연주해주는 악기로 기타를 뽐낼 수 없

다.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수페이 양이 합류한다. 두 사람은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에서 협연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지휘봉도 스페인 지휘자가 잡는다.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로스 마르바다. 스페인 국립오케스트라, 바르셀로나 국립오케스트라 등의 상임지휘자를 거친 거장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뉴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프라노 캐슬린 김과 메조 소프라노 엘리자벳 드송의 모습도 대관령에서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의 오페라 아리아를 듀엣으로 들려준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공동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정경화, 정명화 자매의 연주 역시 음악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 두 명의 바이올린과 첼로의 세계적 거장들은 예술감독이자 아티스트로서 매년 2~3차례 직접 연주무대에 오르고 있다.

●'코리안 피아니즘' 손열음·김태형·김다솔, 바흐에게 경의를 표하다

거인들의 귀환도 반갑다. '클라리넷의 거인' 리차드 스톨츠만이 2년 만에 대관령으로 컴백한다. 2년 전 대관령에서 그의 연주를 접하는 행운을 누렸다. 그 천의무봉한 소리의 향연을 잊을 수 없다. 누구라도 단박에 클라리넷의 팬이 되어버릴 만한 연주였다.

스페인 출신의 첼리스트 루이스 클라렛, 노장 피아니스트 피터 프랭클도 다시 대관령을 방문한다. 지난 해 대관령을 방문한 클래식 팬이라면 세 명의 첼리스트인 게리 호프만, 데이브 케링가스, 지안 왕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돌아가며 연주해 호평을 받았던 콘서트를 기억할지 모른다. 올해는 피아노 연주자 세 명이 바흐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국 피아니즘의 젊은 피들이 손열음, 김태형, 김다솔이 각각 하프시코드, 오르간, 바이올린을 위해 작곡된 바흐의 작품을 피아노 버전으로 들려준다.

음악제 기간 동안 대관령을 방문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귀의 휴가가 될 듯하다. 워터파크 오션700, 알파인코스터 등 알펜시아리조트는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도 풍족하다. ranbi@donga.com 트위터@ranbi361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축제인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시작했다. 올해도 세계적인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8월5일까지 소리의 향연을 펼친다. 스페인의 무용가 벨렌 카바네스. 사진제공 | 대관령국제음악제



25일엔 280억원 채권 만기 팬택 "상환 2년 유예" 흡수

채권단·이동사에 요청...협력사들도 정부 지원 촉구

벼랑 끝에 몰린 팬택(사진)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팬택은 25일 생사의 중대 기로에 선다. 280억원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 이에 앞서 팬택은 10일 220억원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선 25일까지 출자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팬택의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그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팬택은 생존을 위한 다음 플랜을 추진 중이다. 팬택은 최근 채권단과 이동사에 채무상환을 2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목표했던 출자 전환이 이동사의 묵묵부답으로 이뤄지지 않자, 또 다른 카드를 꺼낸 것. 현재 이동사들은 "채권단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팬택 협력사 60여곳은 최근 '팬택 협력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일부 부품 대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팬택 살리기에 힘을 모았다. 협의회는 또 17일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정부와 채권단, 이동사를 대상으로 팬택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영민 기자

구강청결제 알코올 함량 소주 뺄치네

(2.6%~18.6%)

'양치질 대신 가글하고 운전하다 음주운전 걸릴라.' 대부분의 구강청결제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고, 일부 제품은 알코올 함량이 소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약국,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구강청결제 15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2개(80%) 제품이 최대 18.6%의 알코올이 들어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구강청결제에 함유된 알코올 함량은 2.6~18.6%에 달했고, 3개 제품은 소주와 비슷한 15%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소주 알코올 함량은 17~20%다. 알코올 함량이 1~10%인 제품은 ▲시스타마 덴탈워시 메디칼 마일드(2.6%) ▲페리오 46cm 가글 아이스쿨민트(5.0%) ▲가그린 레글로(5.2%) 등 9개였다. 15% 이상인 제품은 ▲가그린 스트롱(15.6%) ▲유한 덴탈케어 가글 스트롱(18.5%) ▲리스테린 티스 앤드 검 디펜스(18.6%) 등 3개 제품이었다.

하지만 이들 제품들은 모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 중 7개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권장하고 있는 '어린이 사용금지 경고 문구'도 표시하지 않았다. KS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경우 제품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도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강청결제에는 표시되지 않은 타르색소 등 다양한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성분표시 확대와 어린이보호 포장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구강청결제는 단순히 입안을 행귀내는 제품이므로 칫솔질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어린이나 운전 중인 경우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혁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2357

또래보다 큰 우리 아이 혹시 '성조숙증' 아닐까

성장판도 일찍 닫혀...조기 치료 중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주부 이모(42)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이씨는 지난해 딸이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또래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학이후 딸은 1년간 성장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가슴에 몽우리가 생기며 유방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딸을 데리고 성장클리닉의 문을 두드렸다. 전문의는 이씨의 아홉 살 딸에게 '성조숙증' 진단

을 내렸다.

성조숙증이란 성호르몬 과잉으로 2차 성징이 사춘기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여아는 만 8세 전에 유방발달이 시작될 경우 남아는 만 9세 전에 고환이 커지면 성조숙증으로 진단한다. 성조숙증 아이는 또래와 비교해 키가 크고 건강해보이지만 성장이 빠른 만큼 성장판도 일찍 닫힌다.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을 가능성이 높다.

성조숙증에는 진성과 가성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진성 성조숙증이다. 진성 성조숙증은 성선자극호르몬 의존성 성조숙증이라고도 불린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생식선으로 이어지는 호르몬 분비축이 성장 시기보다 일찍 발달해 생기는 중추성 성조숙증이다. 진

성 성조숙증을 앓을 경우 사춘기가 또래보다 빠르다.

성조숙증은 유전적 요인이 70~80%를 차지한다. 환경호르몬과 비만,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자녀의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난다면 방학을 이용해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골연령과 성장판 검사는 물론 진성 성조숙증 여부와 2차 성징 시작 시기, 진행 속도, 성선스테로이드 노출 유무, 가족력 등이 체크된다.

성조숙증은 호르몬 주사치료를 치료할 수 있다. 인체 내 존재하는 '성선자극호르몬방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 성조숙증의 진행을 더디게 만든다. 약제를 투여하면 성장속도가 감소하고, 2차 성징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진성성조숙증 진단 ▲골연령이 또래에 비해 2세 이상 많은 경우 ▲예측 성인신장이 150cm 미만 ▲유전적 목표신장에 비해 예측 성인신장이 10cm이상 작을 때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감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생리가 시작,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전문가와의 상담 후 주사치료가 필요하다.

키우리성장클리닉 신경원 원장은 "부모의 유전적 목표신장이 크고, 성조숙증 시작 직후 골연령이 나이에 비해 적을수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치료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데 골연령을 기준으로 여아는 만 12~12.5세, 남아의 경우 만 13세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재혁 기자 ajapo@donga.com 트위터@ajapo